

구례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 확대

만21세이상→ 만 19세 이상 ↓ 전남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

구례군이 만 19~28세 대상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을 확대했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남도와 함께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자를 2월 한 달간 모집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공연 관람, 도서 구입, 체육 시설 등 전남 도내 소재 문화복지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만 21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확대하여 모집하며 신청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28세

청년(1995년~2004년도 출생자)이다.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문화누리비를 제외한 9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

문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선정 절차를 거쳐 4월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지원되는 문화복지비는 연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과 같은 청년정책을 발굴해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농식품 스타트업 가공전문가 양성 장성군, 현장 중심 교육

장성군은 농식품 스타트업 가공전문가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1~24일로 3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총 12회 진행된다.

올해 교육은 참가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해 대표자로부터 가공 기술을 익히고 장비 운용 방법을 학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에게 사과, 감, 복숭아를 이용한 저장 기술 습득 기회가 주어진다. 근채류 장아찌 제조 노하우와 열매과채류 퓨레 제조법, 냉동 저장법, 콩알메주 속성장류 제조방법도 전수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자 가운데 가공식품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에게 제품 생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군, 전기 저상버스 첫 운행



영광군은 지난 7일 영광교통 차고지에서 강종만 군수, 강필구 의장, 최주태 영광교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단위 최초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고 밝혔다. 군은 33대의 군내버스가 경유로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2월 전기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 사업비 7억원(전기저상버스 2대)을 투입해 기반 설비를 구축했다.

영광=김도운 기자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 전남농기원, 여성농업인 대상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6~17일 농업기술원 교육장과 실습포장에서 여성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밭작물 농업기계 활용기술 강화를 위한 체계화된 기초 이론과 1:1 집중 실습 교육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주행 농업기계 방향 및 트랙터 부착형 마늘·퇴비 살포기, 두둑 성형기, 굴착기 등 농업기계 작업기별 작동원리와 점검 정비기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세분화된다.

전남을 찾는 귀농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과 귀농인에 대한 농업기계 교육은 농업기술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강희상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은 "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인공지능 방역로봇 운영 장성군립중앙도서관

장성군립중앙도서관에 인공지능(AI) 방역로봇이 도입됐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인공지능 방역로봇은 24시간 도서관 내부를 자율주행하면서 바닥과 공기 중의 세균을 살균한다.

살균작업은 최신 기술인 플라즈마 방식을 채택했다.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오존을 저농도로 활용해 바이러스나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박멸한다.

로봇 본체에는 실내 공기질의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장착돼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립중앙도서관에 인공지능(AI) 방역로봇이 도입됐다.

장성군 제공

담양군, 어르신 예방접종 지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민선 8기 공약인 향촌복지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주민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예진 후 접종을 받으면 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는 23가 다당질백신(PPSV23) 접종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기관과 관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조진용 기자

청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화순군, 27일까지 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내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지원규모는 푸드트럭 1대당 1600만원까지 개조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총 5대다.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화순읍 수만리 큰재 주차장 △동구리 저수지 인근 주차장 △하니움 주차장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주차장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주차장 등 총 5곳이며 신청자는 1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구비해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로 오는 27일까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군청 일자리정책실(061-379-3042)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나주시, 외국인 근로자 확보 '순조'... 농촌 인력난 해소

올 상반기 총 255명 현장 투입

나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순조롭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8기 들어 필리핀, 베트남 지자체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법무부로부터 올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205명을 배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나주배원에농협이 선정되면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 50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올 상반기에 만 총 25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32명 대비 약 8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나주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숙소 비용 등으로 예산 1억4500만원을 투입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농협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최소 하루단위로 단기간 신청·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나주시는 이달 내 베트남 177명, 필리

핀 12명, 캄보디아 6명, 태국 1명 등 근로자 196명에 대한 사증 발급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설 원에 17곳, 과수 18곳, 기타 16곳 등 총 51개 농가 일손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주시 농촌인력센터 3곳(농어업회의소·농협나주시지부·나주배원협)도 농식품부가 주관한 '농촌인력증대센터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되면서 내국인 농촌 인력 증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화순군, 전국 체육팀 동계전지훈련 유치 잇따라

야구 등 38개팀 선수단 참가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8일 전국초등학교 배드민턴 훈련을 시작으로 초·중·대학부 배드민턴 전지훈련과 화순군 전국 초등학교야구 원터리그를 실시한다.

참여하는 팀은 배드민턴 27개팀(330명), 야구 11개팀(270명)이다.

배드민턴 훈련은 부산, 당진, 김포 등 전국 15개팀 150여명이 참가하는 초등팀, 9개팀 150여명이 참가하는 중학교

팀, 3개 대학팀까지 참여하게 된다.

하니움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초등팀은 28일부터 4일간, 중학교팀은 14일부터 5일간, 대학팀은 15일부터 4일간 체력과 기량을 다질 예정이다.

배드민턴 동계 훈련 외에도 지난달 9일부터 7일간 하니움 복싱체육관에서 경기 도선수단 등 60여명이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했고 9일부터 4일간 화순초 및 이양야구장에서 화순군 전국 초등학교야구 원터리그가 개최된다. 김포, 파주, 대전

등 전국 각지 선수단 270명이 방문해 학교대항 풀리그전을 치른다.

11일 동안 총 600여명이 방문하는 훈련인 만큼 숙박시설, 음식점 이용 등으로 관광 비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을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품 지원 등 각종 편의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담양 농어촌버스 요금 ↓...성인 1000원·청소년 100원

화순, 담양, 무안 등에 이어 담양에서도 '청소년 100원 버스'가 도입됐다.

담양군은 8일 버스운송업체인 (유)동광담양고속과 농어촌버스단일요금제 버스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성인은 1000원, 초·중·고 100원으로 파격적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

로 한다. 청소년은 단일요금제가 적용된다. 이같은 할인 방침은 청소년들의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동안 담양 농어촌버스 기본요금금 성인 1500원, 중·고생 1200원, 초등생은 750원이었다.

이번 요금제는 담양에서 승·하차하는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담양에서 승차한 뒤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승차한 뒤 담양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존 구간요금제를 적용받는다.

할인분에 대한 업체 손실분은 담양군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6억 여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조진용 기자